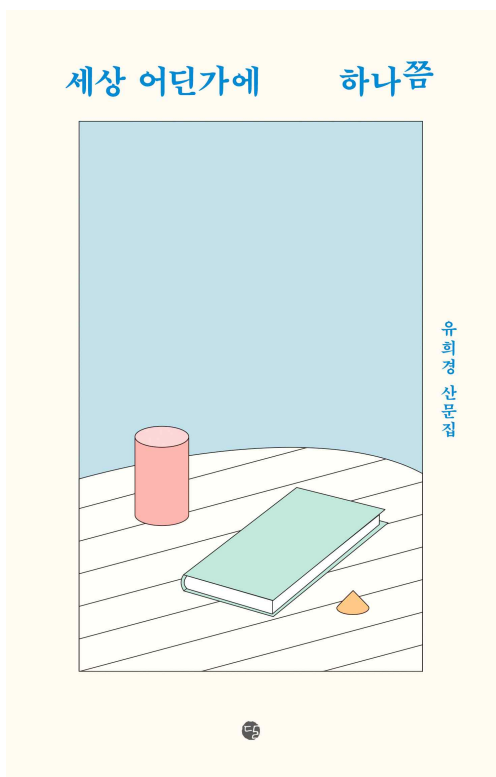


유희경 시인의 산문집 출간

이렇게 멋진 날에도,
불을 켜고 손님을 기다리는 서점지기는 있어야지요



세상 어딘가에 하나쯤

유희경 산문집

2021년 7월 1일 발행
ISBN 979-11-5816-136-1 03810
에세이 | 125*195 | 무선
| 272쪽 | 15,000원

편집 031-8071-8683
마케팅 031-8071-8671

#세상어딘가에하나쯤
#유희경 #시인 #산문집
#시집서점 #위트앤시니컬
#혜화동 #서점지기

“지금의 생각과 감각 너머의 세계를
궁금해하고 있는 게 분명해”

당신은 바깥쪽에서 나는 안쪽에서
우리를 잇는 나의 작은 **시집서점 위트 앤 시니컬**.
그곳의 **서점지기 유희경** 시인의 이야기

유희경

시인이고, 시집서점 ‘위트 앤 시니컬’의 서점지기이다. 시집을 펼쳐 잠시 어딘가로 다녀오는 사람들을 마중한다. 종종 서점에 머무는 독자들에게 머그에 커피를 담아 건네곤 한다. 종일 이 작은 서점 일의 즐거움에 대해 궁리한다.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 한국예술종합학교 극작과를 졸업했다. 시집 『오늘 아침 단어』 『당신의 자리-나무로 자라는 방법』 『우리에게 잠시 신이었던』, 산문집 『반짝이는 밤의 낱말들』, 공동 희곡집 『당신이 잃어버린 것』 등을 펴냈다. 현대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먼길을 돌아오던 길에
나는 나의 서점을 한눈에 알아본다

다른 상점들과 달리 느릿하고 어두운 빛이 번지고 있는,
거기가 나의 서점이다

시집서점 위트 앤 시니컬의 서점지기 유희경 시인이 서점에서 일어나는 소소하고 즐거운, ‘하나쫘’인 이야기들을 산문집 『세상 어딘가에 하나쫘』으로 묶어 펴낸다. 시인은 서점 안에 들어서 있는 물건들, 나선계단을 올라 서점에 입장하는 사람들, 서점이 위치한 혜화동의 풍경, 그리고 작고 많은 서점의 일들에 대해 썼다. 오직 시집만을 판매하는 이 서점의 하루는 매번 다르고 새롭다.

위트 앤 시니컬의 독자들은 모두 설렘, 기쁨, 기대를 한아름 품고 서점을 떠난다. ‘자신의 손에 들린 종이몽치가 새로이 선사할 세계에 대한 기대 가득한 낮’으로. 그들은 또, 고른 시집을 오프라인에 끼며 ‘이것은 나의 시집’이라는 분명한 사인을 보내며, 양손으로는 다른 시집을 찾으며 쇼핑하곤 한다. 이 서점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만이 모인다.

서점 내 빼곡한 것은 책뿐만이 아니다. 독자들이 가지고 온 꽃, 인형, 선물, 편지, 마음들이 가득이다. 독자들의 손길은 어느 곳 하나 소홀함이 없다. 책과 함께 그런 것마저 모여 차곡해질 때 비로소 서점은 서점이 될 수 있다고 시인은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렇게 작고 번잡스러운 서점 살림이 시인의 적성에 맞다. 그렇게 시인은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 자신의 서점에 머무르는 일을 가장 좋아한다. 그것들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쓰고, 읽고, 탄생각, 탄짓을 하다가 이따금 줄기도 한다.

위트 앤 시니컬은 2016년 7월 신촌에 처음 문을 열었고, 현재 혜화동으로 이전했으며 2021년 7월에 오픈 5주년을 맞이한다. 이 책 『세상 어딘가에 하나쫘』은 이를 기념하며 그동안 이 서점을 아껴준 독자들에게 전하는 서점지기의 마음이기도 하겠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 혜화동 동양서림의 2층 창고를 개조한 작은 공간에 위트 앤 시니컬이 있다. 2층과 1층은 나선계단이 이어주고 있으며, 고로 나선계단은 위트 앤 시니컬과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방식이 되어준다. 열 평 남짓한 이 조그마한 서점에 시를 좋아하는 독자들이 나선계단을 빙글빙글 오르내리며 찾아주어, 낮이건 밤이건 아랑곳없이 은은한 빛이 되어주었다. 시인은 이 단언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 확신한다. 그 빛과 온기들 덕에 시인은 자주 캄캄한 서점을 떠나지 못했다. 꼭 그들이 시인을 위해 남아 있는 것만 같았다.

언제나,
시와 시를 애정 하는 독자가 머무는 곳
그렇게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이는 곳

이 시집서점도 다른 서점들과 다를 바 없이 상점이지만, 자주 책값 이상의 것이 오가는 곳이 되곤 한다. 낭독회를 열면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삼삼 오오 모인다.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거나, 테이트를 오기도 한다. 주말에는 동네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귀여웁게 즐거웁게 모인다. 신촌에서 혜화로 이사할 때 평평 울던 인근 대학교 학생들, 이곳에서 처음 만나 결혼까지 한다며 찾아온 예비부부, 시인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다며 찾아온 독자, 오월이면 작약 한 송이를 건네고, 크리스마스 때에는 슬쩍 작은 선물을 놓고 가는 독자들이 있다. 그것은 곧 믿음이고, 서로를 보듬는 마음이며, 결국 가치 있는 이야기들이 된다.

어느 평범한 날에도, 큰비가 내리는 날에도, 그들은 펄쩍 생각이 나면 들르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잊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크고 작은 사연이 있어서 서점은 독자들의 공간이 되어간다. 애뜻하기도 하고 아득하기도 한 그런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 밀도 있는 커다란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만 같다. 시인은 그들이 부디 오래 머물러주기를 바란다. 그들의 궁리에, 몽상에, 모색에, 기꺼이 자리를 내어드릴 생각이다.

시인은 이 작은 시집서점을 운영하면서 독자가 있거나 없거나 매일 궁리하고, 재미있는 일을 모색한다. 독자들이 즐거울 수 있는 일, 시의 세계로 풍덩 다녀올 수 있는 길을 고민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 음악, 냄새 등을 세심히 살핀다. 그렇게 서점과 시인은 점점 썩썩해진다. ‘썩썩함이란 내일 한번 더 해보는 것. 내일모레도 해보는 것. 찾아오는 사람에게 기꺼이 물을 덥혀 차를 내어주는 것. 대가보다 좋아하는 마음을 앞서 생각해보는 것.’

시인과 위트 앤 시니컬은 언제나 썩썩하게, 독자가 언제든 떠올릴 수 있는 ‘하나쯤’으로 세상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독자들이 어느 날에든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차례

서점의 불을 켜며

세상 어딘가에 하나쯤, 당신의 서점에서 _4

1부

그럼, 좋아하는 일을 하러 서점에 가볼까요

비,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이야기 _16

나선계단, 이야기가 쌓여가는 방식 _22

풍경風磬, 더없이 한가로운 풍경風景 _28

소리, 서점에 살고 있는 _33

조명, 느릿하고 부드러운 _38

음악, 읽는 일과 듣는 마음 _44

머그, 하루치의 다정에 대하여 _50

인형, 어쩌면 서점의 주인 _56

책상, 사소하고 조그마한 궁리들 _62

의자, 당신의 자리 _68

식물들, 초록빛 이름들 _74

명함, 위트 있게 그리고 시니컬하게 _81

2부

서점에 누가 있었던 것만 같아요

동료, 매니저 경화 이야기 _88

목수, 남머루 이야기 _95

시인—시인들, 훌륭한 페인트공들 _102

청굴차, 따뜻함과 향긋함 _109

단골, 떠남과 버팀 _114

어린이, 미래의 풍경 _124

낭독회, 서점의 보물 _131

친구, 캔커피를 들고 찾아온 _138

조력자,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 _144

3부

날이 너무 좋아요, 서점 안에만 있기 답답하시겠어요

우체국, 다른 세계로의 통로 _152
구름, 친애하는 더없이 친애하는 _157
우산, 우리 모두의 것 _163
일요일, 조용하고 귀여웁게 _169
가을, 엽서를 적는 계절 _175
겨울, 언제든 만나게 되는 서점의 계절 _180
눈과 굴, 동그랗고 포개면 사람이 되는 _186
크리스마스, 기다리고 기다리는 _192
폭설, 어쩔 수 없이 _197

4부

그럼에도, 서점이라는 일이지요

선물, 두 손의 소유 _204
청소,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_209
연필, 가장 아름다운 흑심 _215
바구니, 한가득 아름다운 무언가 _222
마이크, 거기까지 들리기 위해서 _228
휴식, off on off _235
필사 엽서 그리고 방명록, 당신이라는 흔적 _240
서점 일지, 우리 모두의 기억 _248
냄새, 서점을 가득 채우는 _255
이벤트, 실은 서점의 일상 _260

서점의 불을 끄며
서점을 완성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_266

본문 중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나선계단을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 중 한 사람이다. 누가 계단을 올라올 때, 그가 정수리부터 얼굴, 가슴과 허리 순으로 나타나 마침내 시를 좋아하는 독자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낼 때 여전히 나는 세상에 없는 신비를 목도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그 기분은 찾아올 때와 반대의 순으로 그가 사라져갈 때에도 마찬가지다.

_27쪽 「나선계단, 이야기가 쌓여가는 방식」

책을 읽는 사람은 책과의 말없는 대화에 몰두하는 존재이다. 그들은 책장 앞에서 잠시 사라져버린다. 오직 책의 세계에 자신의 전 존재를 위탁하기 때문에. 현실의 감각은 닫히고 텍스트가 인도하는 책 속의 세계에 깊이깊이 파묻히고 만다. 그런 순간은 아무도 방해해선 안 된다. 나는 그를 내버려두고 나의 책상 위에 전념하며 누군가 서점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책장 앞에 서서 책을 읽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기도 한다. 그러다 가볍게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에 혹은 책장에 다시 책을 꽂아넣는 소리에 펄쩍 깨닫곤 하는 것이다. 아 그래, 누가 있었지 하고 생각하면 어딘가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다. 시를 읽는 방식으로 잠시 어딘가에 다녀온 사람을 마중하는 것 같아서.

_35~36쪽 「소리, 서점에 살고 있는」

한밤의 서점은 장롱 속을 닮았다. 찾아왔던 이들의 온기가 완전히 사그라들고 오직 나만 남았을 때 나는, 서점의 조명을 아예 꺼버리거나 최소한만 남겨둔다. 서점의 고요는 책들이 내는 소리와 같다. 무언가 빨려들어가는 듯한, 아니 빨려들어가다가 멈춘 듯한 조용함. 그러므로 애써 들으려 하면 무언가 들릴 것도 같은데 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이상한 말이지만, 나는 그 ‘소리’를 ‘지켜본다’. 보고 있는 것만 같다. 턱을 괴고 앉아서 우두커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간신히 숨만 쉬면서. 지루한 줄도 모른다. 책들이 내는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정말 편안하게 만든다. 늦은 시간 자꾸 캔맥주를 따게 되는 것이 타일지도 모른다. 무엇이든 핑계를 만들어서 조금 더 있고 싶은 것이다.

_39~40쪽 「조명, 느릿하고 부드러운」

위트 앤 시니컬에는 자금자금한 것들이 참 많다. 하나같이 내 친구들이 놓아준 것이다. 그나마 왜 친구들은 이런 작은 것들, 어느 해변에서 주워 온 조개껍데기라든가, 움직이지 않는 양철 로봇이라든가, 얼굴이 그려진 굴 모양 양초, 표류하는 사내가 든 스노볼, 낚시를 하고 있는 두 마리 고양이, 구름 모양의 조명 등등의 것들을 선물하는 것일까. 그런 것들로부터 위트 앤 시니컬을 떠올리는 것일까. 쓸모보다, 아름다운 것. 쓸모와는 다른 쓸모가 있는 것이 시, 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말이지.

_61쪽 「인형, 어쩌면 서점의 주인」

겨울에는 굴을 담아 책상 위에 올려놓기도 한다. 주인이 따로 있다 여기는지 먹는 사람은 없다. 그 굴들이 오래되어 말라버리면 그것이 참 서운하다. 서점 일의 많은 부분이 그

렇다. 이러저러한 기획을 해보지만, 의도대로 되지는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준비해놓고 마냥 기다릴 뿐이다. 그러다 누가 글을 까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하면 정말 기쁘고 즐겁다. 서점 일이란 게 그렇다. 책상 위에 글을 올려놓고, 누군가 먹여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소하고 조그만 궁리들.

_65~66쪽 「책상, 사소하고 조그마한 궁리들」

한곳에 머물러 맞이하는 입장이 되어서야 떠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세상 모든 장소가 그렇듯 서점에도 떠나는 이들이 있다. 의식하지 못한 사이 거리가, 마음이 멀어져서. 불가피하게 자연스럽게. 떠나게 된 사람들은 돌아오기도 하고 여태 돌아오지 않기도 한다. 여기 남아 있는 나는, 나의 서점은 그저 그들의 안녕을 궁금해하고 바라고 짐작할 뿐이며 어쩔 도리가 없으니 잘 있다가 그들이 돌아오면 환대를 해주어야겠다 다짐한다. 매일매일 다짐을 하면서 어제든 오늘도 아마 내일도 이 자리에 있고 있을 것이다.

_116쪽 「단골, 떠남과 버팀」

무언가 가라앉고 있다. 가늘게 눈을 뜨듯 세심해지면 알 수 있다. 공중에 떠도는 희미한 비넴새와 더불어 읽는 마음을 독려하는 얇고 투명한 한 꺼풀. 책 위에. 책을 살피보는 사람들 위에도 덮여 있다.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다. 어찌면 이는 서점지기들만의 비밀 일지도 모른다. 그런 것이 몇 개 있다. 이를테면, 여름 잎사귀 그림자의 소리 같은 것. 한 자리에서 오래 창밖을 보는 직업이 가질 수 있는 특권 같은 것이다.

_164쪽 「우산, 우리 모두의 것」

종일 이런 일들을 궁리한다. 내가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이어 발생하는 사건들. 위트 앤 시니컬은 작은 서점. 직접 찾아와야 누릴 수 있는 곳. 작다니. 시집이라니. 서점이고 직접 누려야 한다니. 버튼 서너 번 누르면 내가 있는 곳까지 책이 배송되는 시대에 허점과 약점뿐이다. 그런가. 언제부터 걸어가 서점을 찾는 일이, 책을 골라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허점과 약점이 되었지. 서점을 찾아가는 동안 보고 듣는 것들이 주는 즐거움, 서점을 떠날 때 내 책을 얻었다는 기쁨, 이런 일은 계산할 수 없어서 이익을 본 사람도 손해를 본 사람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작은 서점의 일.

_261~262쪽 「이벤트, 실은 서점의 일상」